

# 平昌郡議會本會議會議錄

第43回平昌郡議會

開會式

平昌郡議會事務課

1996年 9月 20日(金) 09時30分 開式

## 第43回平昌郡議會(臨時會)開會式順

1. 開 式
1. 國旗에對한敬禮
1. 愛國歌齊唱
1. 殉國先烈및護國英靈에對한默念
1. 開會辭
1. 閉 式

(司會: 議事係長 全完鐸)

(09時30分 開式)

○ 議事係長 全完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개최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목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낙운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議長 金樂雲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제43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김용욱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군정의 당면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평창군의회 임시회를 열어,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년에 비하여 유난히도 무더웠던 금년 여름 기간동안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내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부단한 노력과 정열을 기울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 현상에도 불구하고 과소비 현상이 발생하여 소비지출 증가분이 소득의 증가분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외채도 8월말 현재 950억 달러에 달하여 금년 연말에 가서는 해외 현지에서 조달한 외채까지 합쳐 1,300억 달러로 늘어나 이자로 지출되는 돈만도 연간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과거 우리의 전통적 미덕인 근검절약 정신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경제는 아직 개발도상에 있는 미완성의 경제로서 선진국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헤쳐 나가야 할 난관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황이 깊어지면서 업계에서는 감량경영의 선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각종 불필요한 소비성 요인을 찾아 절약 및 긴축경

영을 하고 있으며 30대 사원까지도 명예 퇴직 이라는 인원감축으로 사회전반에 문제를 파급 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군정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이러한 어려운 경제상황에 비추어 낭비적인 예산운용은 없었는지 뒤돌아 보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전반에서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고 경제를 살려 보려고 애쓰는 이 시기에 우리의 군정 살림살이에도 강력한 긴축 의지를 담아 행정기관부터 절약운동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공무원들도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갖고 각자가 기획하고 집행하는 군정의 하나하나가 군민생활에 직접 결부 된다는 철저한 직업 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의 의정활동도 앞으로 3개월여 남짓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방자치의 제도하에 그간의 추진했던 의정활동 사항중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은 없는지 다시한번 꼼꼼하게 살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각종 조례안의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안건들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심도있는 숙의로 원만히 처리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事係長 全完鐸 : 이상으로 제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9時40分 閉式)